

녹색성장시대에 우리의 할 일



김창로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02-2102-2500

최근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것은 세계적 트렌드 변화를 대치한 선제적 대응이다. '저탄소·친환경'은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낼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황에서, 이런 흐름을 리드해나가지 않고는 일류 선진국가로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연계한 무역장벽도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환경문제 해결 없이는 지속 성장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성장이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것과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화로 지속성장을 실현하는 것이다.

녹색성장(Green Growth)은 '환경(Green)'과 '성장(Growth)' 두 가지 가치를 다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과 성장이라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개념의 결합은 이미 선진국에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실현되고 있다.

기후 변화와 환경규제는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환경비용을 초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친환경제품과 생산설비 수요, 즉 녹색시장을 창출한다. 따라서 녹색혁신을 통한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

화로 환경비용을 상회하는 녹색시장가치를 창출하여 녹색성장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들은 급로변 녹색시장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녹색기술 개발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고, 선진 기업들도 녹색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녹색제품 생산체제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업계도 세계적인 녹색시장 선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화에 핵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우리기업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부단한 기술개발 및 노력이 강추 되어야 할 것이다.

- 녹색기술 급로변 경쟁력 조기 확보
우리 강점인 IT, BT, NT, CT 등의 융합화를 통해 차세대 신재생에너지, 콘린화석에너지(IGCC, CCS) 및 태양광합성(메탄올 생산), 인공태양 등의 핵심, 원천기술개발 강화
- 그린홈 등 생활민확형 녹색기술 집중개발
녹색분야 글로벌스탠더드 선점을 통해 국제 경쟁력 제고
- 기존산업의 녹색화
친환경 공정 혁신 및 소재 개발 등을 통해 주력산업의 녹색전환

- 녹색경영 확산
환경친화적 제품생산·녹색경영을 위해 모
기업과 협력사간 그린파트너십을 확대하고
녹색경영시스템을 개발·보급

정부는 기업들의 녹색제품 개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녹색기술 및 제품 개발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저리 금융 등 정부차원의 금융·세제 지원과 함께 개발된 제품의 우선 조달 구매 및 국내외 전시회 참여를 지원해야 하며, 한계기업이나 시장 성숙 제품 생산업체가 녹색제품 생산업종으로 업종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시험연구원은 이러한 녹색성장의 시대에서, 신진 각국에서 새로운 환경규제 조항을 신설하여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때,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육성,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기술적 근간이 되는 녹색산업 기술의 기술성 평가 및 녹색제품의 성능평가, 표준방법 및 평가방법 개발 등으로 녹색기술 및 녹색제품의 시장화 및 수출에 이바지할 하여야 할 것이다.

- 녹색기술의 제품별 성능 평가 시스템 구축 및 보급
- 녹색제품의 물질별 안전성 평가 표준 방법 및 기준
- 녹색기술의 제품별 신뢰성 향상 기술개발
- 녹색기술 및 제품의 리스크 분석 및 평가방법 개발
- 녹색기술 및 제품의 평가시스템 구축 및 보급

따라서, 앞으로 녹색성장 시대의 생산업체는 시장지향형 녹색기술 및 녹색제품을 개발하고, 시험연구원은 이러한 제품의 성능평가 표준방법 및 기준을 개발하며, 정부는 녹색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법, 제도 등 인프라 정비를 하여, 우리의 녹색기술 및 녹색제품의 자체적인 경쟁력 향상이 될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녹색기술 및 녹색제품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침체된 국내경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 기술표준 2009.7